

# “금남지하상가 사업권 반환하겠다”

2공구 관리 금광기업, 이양시기 앞당길듯  
市, 관리부실·요금체납 등 이유 긍정 검토

금남지하상가 관리업체가 최근 광주시에 사업권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말 이관 예정인 상가 관리권이 조기 이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남지하상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유)금남지하상가는 지난달 13일 ‘내년 11월 28일까지인 사업권을 조기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금남지하상가 2공구 관리권 이관 요청’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국립 아

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이후 지하상가 2공구(분수대) 상권이 마비되고, 모기업인 금광기업마저 유통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설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남지하상가는 1공구(금남로3가~전일빌딩)에 204개 점포, 2공구(분수대)에 174개 점포가 입주해 있으며, 1공구는 광주도시공사가, 2공구는 금광기업 계열사인 (유)금남지하상가가 관리하고 있다.

2공구의 경우 문화전당 공사로 인해 상당수 출입구가 통제돼 유통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점포 174곳 중 겨우 50여 곳만이 영업하고 있다. 최근엔 전기요금을 장기 체납해 한전으로부터 단전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금남지하상가 관계자는 “문화전당 공사로 사실상 출입구가 막히면서 2공구 상권이 붕괴됐다”이라며 “영업 점포가 점차 줄더니 몇 달 전부터는 관리비마저 걱정하지 않아 공공요금 체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모기업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체권·채무가 동결돼 어쩔 도리가 없고, 법원에서도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이같은 관리 부실과 공공 요금 체납 등을 이유로 조기 이관을 긍정 검토, 지난 5월말까지 이관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같은 달 19일 냉각탑 붕괴사고로 인수·인계 작업이 중단됐다.

냉각탑 붕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정밀안전진단, 피해보상 문제 등이 얹혀면서 시가 조기 인계를 유보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남지하상가 조기 이관에 대해 협의 도중 냉각탑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중단됐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피해 보상 등 진상조사가 정확히 이뤄진 이후에 반환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구도심 다시 살린다

민선 5기 인수위, 도시재생본부 설립 적극 검토

민선 5기 인수위원회가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지역 구도심 주택가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본부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는 광주시 도시건축국·건설교통국·문화정책실·종합건설본부 등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설립하는 안이 유력하며, 여기서 수립된 정책과 계획은 광주시도시공사에

의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선 5기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30년 전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을 통한 외연 확장으로 인해 구도심 내 인구가 유출되고 빙·집 증가, 공공·상업 시설 이전 등과 맞물리면서 구도심이 쇠락하게 됐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설치나 정책 시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종합적·체계적·장기적 관점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본부 설립은 강운태 광주 시장 당선자의 공약으로, 인수위는 ‘구도심 주택가 재생’을 전 단계를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 문화·도시·건축·교통·건설 등 구도심 재생에 필요한 기능을 융합하는 것이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조직개편의 틀에서 이를 고민하고 있다. 한편 강 당선자와 민선 5기 인수위원회는 14일까지 광주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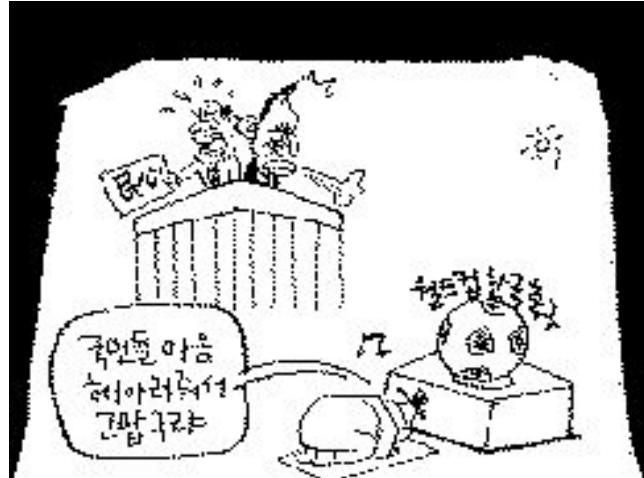
실·국과 공기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토론을 모두 마쳤다.

강 당선자는 15일부터 3일간 하남 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인수위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업무보고 결과와 강 당선자의 공약, 국내·외 주제 등을 반영해 민선 5기 핵심 정책 및 사업을 구상하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결과 광주시 각 실·국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해 정확한 조직진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결론이며, 어떻게 조직을 선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국민 만령

- 김종우



## ‘임을 위한 행진곡’ 금지는 잘못

### 정총리 국회 답변

정운찬 국무총리는 14일 지난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주모곡으로 지정되지 않아 반쪽 기념식으로 전락한 것과 관련, “원인이 어려운 잘못됐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정부가 올 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한 건 잘못된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총리는 또 김 의원의 “내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할 것인가?”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5·18 단체들이 5월 13일에 본행사에서도 부르게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이에 보통처 측에서 실무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요청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총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한 건 잘못된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총리는 또 김 의원의 “내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할 것인가?”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5·18 단체들이 5월 13일에 본행사에서도 부르게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이에 보통처 측에서 실무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요청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도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유)금남지하상가가 광주시에 사업권의 조기반환을 요청해 사업권 형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로 일부 진입로가 차단돼 시민들의 불길이 끊긴 상가 전경.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설령한 금남지하상가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유)금남지하상가가 광주시에 사업권의 조기반환을 요청해 사업권 형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로 일부 진입로가 차단돼 시민들의 불길이 끊긴 상가 전경.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 지자체 축제 예산 사용 멋대로

### 감사원 지적… 재정투융자 심사도 안받고 혈세 ‘평평’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매년 개최하는 축제들의 부실 운영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허술한 사전 심사제도나 보조금 교부·집행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4일 감사원이 내놓은 ‘지자체 축제·행사 집행실태’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0 명랑대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해놓고 고도 축제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 15억5000만원, 2009년 21억 5000만원 등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놓고서도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도에서 10억원 이상의 축제·행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형식적 평가에 그치거나 치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진도군의 경우 축제추진위원회가 ‘신비의 바닷길축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해당 평가기관은 추진위와 자치단체가 내놓은 ‘부풀려진 자료’를 인용,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수시도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1000만원 이상 민간행사보조금을 지

원한 근로자 한마음축제 등 30개 행사·축제에 대해서 성과 평가도 없이 또다시 지난해 각각 1000만~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축제 운영 과정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여수시는 특히 지난해 7월 13일 신종플루로 인해 ‘국제청소년축제’를 취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해외참가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된 뒤 입국한 24명의 항공료 및 제비 250만~390원을 부담하는가 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권을 구입한 49명에 대한 항공권 구매비용(5171만~3400원)까지 부담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3295억 지원

### 호남권 광융합부품소재 개발 ‘A등급’

지식경제부는 14일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올해 모두 3천29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시작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20개 프로젝트에 대한 1차연도 사업평가를 마무리하고, 2차

연도 사업에 2천75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540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모두 3천29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 4월 종료된 1차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호남권의 광(光)기반 융합부품소재와 하이브리드자동

차 부품소재 프로젝트, 대경권의 양광 부품소재 등이 A등급을 받았다.

또 호남권의 ‘코레일 철도의 실내용 LED 교체’와 동남권의 ‘친환경 50cc 전동스쿠터의 서울시 시범 공급’ 등 중간성과가 있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사업으로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3개 권역이 상호연계해 태양광 분야에서 통합연계형 공정기술개발 과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간 연계와 협력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최고 상권 건물 매매

###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식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 대지 632.9㎡, 건물 2,289.09㎡
- 가격 상당 후 결정



동천 DC MART

동천 DC MART